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6. 4. (금)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
2	×	○	담당관 : 김동석 (02-3677-2050)
			팀 장 : 이승구 (02-3677-2060)
			담 당 : 강수정 (02-3677-2062)

##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철화...과천시 대안 수용

- 당정협의 거쳐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철화...과천시 대안 수용
-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지에 3,000여 호, 시가화 예정지에 1,300여 호 공급 협의
- 김종천 과천시장 “청사 유희지 문제 항구적 해결 위해 활용 방안 마련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청사 유희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화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당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과천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 호,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여 1,300여 호를 건설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천 원도심, 과천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신규 택지 지역 등이

서로 상생하면서 과천시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시를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청사 유희지 활용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청사 유희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해준 이소영 의원과 과천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준 당,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여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사 일대 주택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 상황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김종천 시장은 일관되게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에 맞춰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당과 정부를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심정을 전달하고, 청사 유희지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